AI와 함께 만든 우리 가족 맞춤형 부산 2박 3일 여행 계획

여행 계획을 세우는 데만 반나절이 걸렸다

여행을 좋아하지만, 가족 여행을 계획할 때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고 싶은 장소는 많은데 이동 동선은 복잡했고, 부모님은 오래 걷는 것을 힘들어하셨습니다. 맛집과 관광지를 많이 넣으면 일정이 빡빡해졌고, 여유롭게 계획하면 무엇을 빼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인터넷 검색 결과를 모으는 대신, 생성형 AI를 여행 계획 보조자로 활용해 보았습니다. AI에게 여행을 대신 맡긴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조건을 정리하고 여러 일정안을 비교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최종 결정과 사실 확인은 제가 직접 했습니다.

> **주의:** 아래 글의 대괄호 부분은 실제 제출자의 여행 정보와 사용 기록으로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제출하면 공모전의 인정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

1. 여행 조건부터 AI에게 정확히 전달했다

처음부터 “부산 여행 일정을 짜 줘”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유명 관광지를 무작정 나열한 일정이 나오기 쉽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가족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 여행지: 부산
- 기간: 2박 3일
- 동행자: 성인 [○]명, 부모님 [○]명
- 출발지: [출발 지역]
- 이동수단: [대중교통/자가용/혼합]
- 여행 목적: 바다 풍경, 지역 음식, 무리하지 않는 휴식
- 하루 걷기 목표: 약 [○]보 이하 또는 [○]시간 이내
- 예산: 1인당 약 [○]만 원
- 제외 조건: 오르막이 심한 장소, 지나치게 붐비는 시간대, 장거리 환승
- 꼭 가고 싶은 곳: [장소 1], [장소 2]
- 음식 조건: [알레르기, 채식, 못 먹는 음식 등]

그다음 다음과 같은 프롬프트를 입력했습니다.

```
Plain Text
```

```
부산 2박 3일 가족 여행 일정을 계획해 줘.
단순히 유명한 장소를 많이 넣지 말고, 이동시간과 휴식시간을 고려해 하루 2~3곳만 추천해 줘.
부모님이 함께하므로 오르막과 장시간 도보 이동은 줄여 줘.
각 장소마다 추천 이유, 예상 체류시간, 다음 장소로 이동할 때 확인해야 할 점을 표로 정리해 줘.
영업시간·휴무일·요금·교통정보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지도 서비스에서 확인
정보가 불확실하면 추측하지 말고 '확인 필요'라고 적어 줘.
```

이렇게 조건을 구체적으로 입력하니, 단순 관광지 목록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맞는 일정안을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

2. AI가 만든 첫 번째 일정은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AI는 처음에 하루에 네 곳 이상을 방문하는 일정을 제안했습니다. 장소 자체는 매력적이었지만, 이동시간과 식사시간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매우 바쁜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AI에게 일정의 문제점을 다시 찾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Plain Text

```
방금 일정에서 실제 여행자가 피로를 느낄 만한 구간을 찾아 줘.
장소 수가 너무 많거나 이동이 비효율적인 날을 표시하고,
각 날짜마다 핵심 장소 2곳과 선택 장소 1곳만 남겨 다시 구성해 줘.
비가 오거나 한 장소를 방문하지 못했을 때 사용할 대체 일정도 제안해 줘.
```

그 결과 일정은 ‘많이 보는 여행’에서 ‘무리하지 않고 오래 기억하는 여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AI가 제시한 내용 중에서 실제 지도상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가족들의 선호를 반영해 장소를 다시 선택했습니다.

---

3. 최종적으로 정리한 부산 2박 3일 일정

아래 일정은 형식 예시입니다. 실제 제출 전에는 본인이 실제 방문한 장소와 시간, 사진, 지출 내역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1일 차: 도착 후 바다를 보며 적응하기

시간	일정	AI 활용 및 사람의 판단
오전	[출발지]에서 부산으로 이동	AI가 제안한 이동수단별 장단점을 비교한 뒤 예약 • 시간은 직접 확인
점심	숙소 주변 식사	가족의 음식 조건과 대기 가능 시간을 반영해 선택

오후	[해변 또는 전망이 좋은 장소]	첫날 무리하지 않도록 핵심 장소 1곳만 선택
저녁	[지역 음식] 식사	AI 추천은 참고만 하고 후기・메뉴・영업 여부를 직접 확인
밤	숙소에서 휴식	다음 날 이동 동선을 다시 점검

첫날은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AI는 여러 장소를 제안했지만, 도착 직후에는 이동과 체크인만으로도 피곤할 수 있다고 판단해 바다를 볼 수 있는 장소 한 곳만 남겼습니다.

2일 차: 핵심 관광과 휴식을 균형 있게 배치하기

시간	일정	AI 활용 및 사람의 판단
오전	[가족이 가장 기대한 관광지]	사람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대를 검토하되, 실제 운영시간은 공식 채널 확인
점심	[인근 식당]	이동을 줄이기 위해 관광지와 가까운 식당 위주로 비교
오후	카페 또는 숙소 휴식	AI가 제안한 '빈 시간'을 삭제하지 않고 유지
저녁	[야경・시장・산책 장소 중 하나]	체력에 따라 선택하는 유동 일정으로 구성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빈 시간'을 일정의 실패로 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빈 시간이 생기면 다른 장소를 추가했지만, 이번에는 가족이 쉬고 대화하는 시간도 여행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일 차: 기념품과 귀가를 고려한 여유 있는 일정

시간	일정	AI 활용 및 사람의 판단
오전	숙소 주변 산책 또는 [방문 장소]	체크아웃과 짐 보관 시간을 고려해 가까운 장소 선택
점심	재방문하고 싶은 음식점	여행 중 만족도가 높았던 메뉴를 기준으로 결정
오후	기념품 구입 후 귀가	교통 지연 가능성을 고려해 여유시간 확보

마지막 날에는 새로운 장소를 많이 넣지 않았습니다. 여행의 마지막에 일정이 꼬이면 전체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귀가 시간을 기준으로 역산해 움직였습니다.

---

4. AI를 사용했지만, 최종 결정은 사람이 했다

이번 여행에서 AI가 한 일과 제가 한 일을 구분했습니다.

AI에게 맡긴 일

- 여행 조건을 바탕으로 여러 일정안 만들기
- 장소 간 이동 순서 비교
- 일정이 과도하게 빡빡한 부분 찾기
- 비가 올 때의 대체 일정 제안
- 여행 준비물과 확인사항 체크리스트 작성
- 가족 구성원별 질문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정표 문장 다듬기

제가 직접 한 일

- 실제 지도에서 이동거리와 소요시간 확인
- 영업시간, 휴무일, 입장료, 예약 필요 여부 확인
- 공식 홈페이지와 지도 서비스에서 최신 정보 재확인
- 가족들과 일정 협의
- 날씨와 교통상황에 따라 일정 조정
- 식당과 숙소의 개인정보・예약정보를 AI에 입력하지 않기
- AI가 생성한 잘못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삭제

AI가 추천한 장소라고 해서 모두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AI의 답변을 초안으로 삼고, 가족의 체력과 실제 상황에 맞게 덜어내는 과정이 이번 활용의 핵심이었습니다.

---

5. 직접 사용해 보니 무엇이 달라졌을까

여행 전후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아래 수치는 반드시 본인의 실제 기록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 일정 작성에 걸린 시간: [기존 ○시간] → [AI 활용 후 ○시간]
- 하루 평균 방문 장소: [기존 ○곳] → [○곳]
- 가족이 느낀 일정 부담도: [○점] → [○점]

- 이동 중 길을 다시 찾은 횟수: [○회] → [○회]
- 여행 후 가족 만족도: [○점/5점]
- 예산 대비 실제 지출: [○만 원]

숫자로 기록하기 어려운 변화도 있었습니다. 가족 구성원마다 원하는 여행 속도가 달랐는데, AI를 활용해 선택 가능한 일정과 휴식시간을 미리 마련하면서 현장에서 의견 충돌이 줄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여행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된 것도 큰 변화였습니다.

---

6. 나만의 차별화된 활용 방법: 여행 일정에 '피로도'를 넣었다

기존의 여행 일정표는 보통 장소, 시간, 비용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저는 여기에 가족의 피로도를 추가했습니다.

각 일정에 다음 세 가지를 표시했습니다.

- 걷기 정도: 낮음 / 보통 / 높음
- 이동 복잡도: 낮음 / 보통 / 높음
- 중간에 쉬어 갈 수 있는지 여부

그 후 AI에게 "오늘 오전 일정의 피로도가 높으면 오후 일정을 자동으로 줄이는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 걷는 시간이 길어지면 오후에는 카페나 숙소 휴식으로 바꾸고, 비가 오면 야외 장소 대신 실내 장소를 선택하는 식입니다.

이 방법은 AI가 정해 준 고정 일정표가 아니라, 현장 상황에 따라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조건부 여행 계획표'를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

7. 책임 있게 사용하기 위해 지킨 원칙

AI를 여행에 활용하면서 다음 원칙을 지켰습니다.

1. **최신 정보는 공식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
   영업시간, 휴무일, 요금, 교통편은 AI의 답변만 믿지 않고 공식 홈페이지와 지도 서비스에서 확인했습니다.
2.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예약번호, 전화번호, 결제정보, 가족의 건강정보처럼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AI에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3. **AI가 만든 문장을 그대로 사실처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장소 설명이나 추천 이유가 실제 정보와 맞는지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표현은 삭제했습니다.
4. **사진과 콘텐츠의 출처를 확인했습니다.**
   블로그에 사진을 넣을 때는 직접 촬영한 사진을 우선 사용하고,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글을 사용할 경우 이용 조건과 출처를 확인했습니다.

5. **가족의 동의를 반영했습니다.**
   가족 사진이나 여행 후기를 게시할 때는 게시 여부와 공개 범위를 가족에게 확인했습니다.

---

8. 여행을 마치고 얻은 결론

AI는 여행을 대신 결정해 주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정리하고, 여러 선택지를 비교하며, 놓친 조건을 발견하게 해 주는 보조자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유명한 곳을 최대한 많이 가는 여행”보다 “함께 간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만족하는 여행”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AI에게 가족 구성원, 이동수단, 걷기 정도, 예산, 날씨에 따른 대체안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자 여행 계획이 훨씬 현실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도 여행을 계획할 때 AI를 활용하겠지만,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하려고 합니다. AI의 추천을 확인하고, 가족과 상의하고, 현장에서 상황에 맞게 바꾸는 과정까지 포함해야 비로소 나에게 맞는 여행 계획이 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 **AI로 여행을 대신 떠나는 것이 아니라, AI를 활용해 함께 떠날 사람을 더 잘 이해하는 여행을 만들었다.**

제출 전 사실 확인 체크리스트

- [ ] 실제로 본인이 사용한 AI 도구명을 기재했는가?
- [ ] 실제 입력한 프롬프트 또는 활용 과정을 일부 제시했는가?
- [ ] 실제 여행 날짜, 장소, 동행자, 사용 결과로 수정했는가?
- [ ] AI가 제안한 내용과 본인이 수정・검증한 내용을 구분했는가?
- [ ] 시간 절감, 비용, 이동거리, 만족도 등 실제 근거가 있는가?
- [ ] 사용한 사진・지도・후기・음악의 출처와 이용 조건을 확인했는가?
- [ ] 가족 사진과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가?
- [ ] 영업시간・요금・교통 등 변동 가능한 정보를 최신 공식 출처로 확인했는가?
- [ ] 직접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실제 사례처럼 작성하지 않았는가?